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1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예화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 2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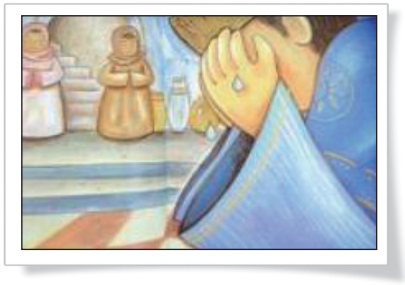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써 당신께 기도하게 하소서.

– 주님, 그저 당신께 귀 기울이겠나이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기도는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흔히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의 주제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신변의 이야기에서부터 사회적인 이슈까지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왠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기원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소연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보다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대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성격이나 취미나 이야깃거리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마음이 느낄 때, 그때부터 대화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침묵하더라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단 한 마디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대화, 바로 그런 대화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1, 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미사 예물을 바치지 않고서도 미사 중에 죽은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연미사가 됩니까?

반드시 미사예물을 바친 경우에만 연미사가 성립됩니다. 미사에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연미사'는 아닙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감사미사'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물봉헌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물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2코린 9,7)바칠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2코린 8,11) 바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함은 스스로 우러나는 영혼의 진심입니다. 그분께 봉헌해 올리는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지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유가 이리 명확한데 성립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따지고 분석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제발,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연미사'가 성립된다면 바치지 않는 쪽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 탓에 질문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미사의 본질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최선을 보시는 그분, 그분을 향한 진심과 사랑만이 전부임을 기억하세요.

(「소곤소곤 이건 알아두세요」 P.54~55,장재봉 신부)

하늘 닮은 빛으로 물들어 가는 단풍나무 한 그루

- 완월동성당 3구역 6반 -

가을입니다. 과일들은 열매를 맺고, 벼는 이미 타작에 들어갔습니다. 허허로운 빈 논을 바라보면 누구나 지난 시간의 마음살이를 셈해보게 됩니다. 마침 완월동성당 3구역 6반 10월 모임의 복음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 하느님께서는 이 가을에 알맞은 말씀으로 반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여고생 딸과 부딪치는 일이 많아지신 한 자매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다보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에스텔 자매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비자 권면을 처음 한 이후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반성하셨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삶을 비추어 보고 있었지요. 나눔이 마무리되려던 순간,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시는 레지나 반장님의 따뜻한 다독임. "저는 우리 반이 좋은 나무라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에서도 계속되는 풍성한 나눔. 준비된 삶,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십니다. 직접 겪으셨거나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 신문에서 보셨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지요. 살아가며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을 삶의 방향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그 삶을 어떻게 더 복음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완월동성당 3구역 6반은 총 25세대 가운데 10여 분 정도가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

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은 본당에서 3구역 6반이 가장 젊은 반이라고 합니다. 다들 외모가 어찌나 출중하신지 화단 하나를 옮겨 놓은 것 같았지요. 반원들 대부분이 사목위원과 전례봉사 또 우리농 매장 봉사를 맡고 계시는 등 활동에도 적극적이셨습니다.

친자매간이신 반모임의 왕언니 모니카 자매님과 리디아 자매님은 모임의 든든한 기둥이셨습니다. 가장 젊으신 카타리나 자매님은 결혼 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게 되셨는데 처음 참석 권유를 받았을 때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모임에 나와 보니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소공동체 모임 전 반원들이 모여 성당청소를 하시는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성당 청소를 해보겠나' 하는 생각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젊은 새댁에서 고운 백발의 왕언니까지, 피아노 건반이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저마다의 음으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내듯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조화로운 선율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3구역 6반. 반원 모두 함께하기에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감사하기만 하시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3구역 6반은 무학산 등산로 입구에서 생수를 나누어주며 전교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자 수를 늘이고 실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함께 하자는 손내밈, 행복과 기쁨, 감사함이 묻어나는 환한 미소라면 그 누구도 마다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 가을, 완월동 무학산 등산로 입구로 가시면 하느님을 향한 삶으로 잎잎이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 한그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월동성당 3구역 6반 소공동체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